

소그룹 교재 (2 월 기쁨의 언덕으로)
한명선 (데마레스트 연합감리교회)

2 월 첫째주 소그룹 모임

에스라 3:10-13 “같은 현상, 다른 반응”

찬송가

263 장 이 세상 험하고(통, 197)

600 장 교회의 참된 터는 (통, 242)

208 장 내 주의 나라와 (통, 246)

여는 질문

함께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반응이 달랐던 적이 있었습니까? 함께 같은 일을 겪고도 교회의 오래된 세대와 젊은 세대의 반응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에 기초를 놓는 장면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70 여년 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큰 상처-더 정확한 말로 하면 트라우마 trauma-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 마르둑 Marduk 에게 졌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70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첫 삽을 뜬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매우 남달랐습니다. 무너진 건물 만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뜨고는, 옛 성전을 기억하는 늙은 사람들은 슬퍼서 울고, 옛 솔로몬 성전의 기억이 없는 젊은 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어난 현상은 하나인데, 구세대와 신세대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말씀 속으로

- 1) 첫 성전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12 절)

(에스라의 주도 하에 다시 지은 성전은 사실 그 규모가 그리 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황급히 지은 것이니 그럴 수 밖에 없었겠죠. 에스라 다음 책인 느헤미야에는 성전이 아닌 성벽 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느헤미야가 다시 쌓은 성벽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웅장한 것이 아닌 소박한 크기의 성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이 무릎까지 밖에 오지 않을 정도로 소박했다고 하여 느(knee-무릎)헤미야 라고 기억하겠습니까? 이 소박한 성전은 약 400 년 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다시 화려하게 지어줍니다.)

- 2) 또 다른 쪽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뻐 즐거이 노래하였을까요? (12 절)

(기뻐서 즐겁게 노래한 사람들은 주로 바빌론 포로 때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었습니다.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어, 이제 자신들의 뜻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으니 기쁨에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삶 속으로

- 1) 분명, 같은 경험을 했는데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다른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오해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미국 문화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몇 가지 일에 대해 우리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컨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딸이 최근 취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는 딸을 보며 아빠는 걱정된 마음으로 “애, 이제 너 힘들겠다. 좋은 시절 다 갔으니 어쩌면 좋으니? 이제 아침마다 출근하고 일하면 힘이 들어 불쌍해서 어떻하니?” 아빠는 걱정된 마음으로 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딸은 자기 방에 뛰어 들어가 울더랍니다. 딸은 자신이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되어 출근하니 아빠로부터 축하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자, 딸은 실망하고 당황한 것이죠. 나중에야 대화를 통해, 아빠가 딸을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더 사이가 돈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다른 반응으로 오해했던 일을 나누고, 꼭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까지 나누도록 하세요.

- 2) 교회에서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젊은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다른 반응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반응이 오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나요? 오해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겪는 세대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른 반응을 인정해주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서로 충실히 들어주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죠. 한참 전, 한국에 있는 제 고향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며 1950 년대 한국 전쟁 직후 지었던 옛 돌 예배당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옛 건물이 올려졌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너무 섭섭해하셨습니다. 반면,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어서 오래된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기를 바랬죠. 한 프로젝트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참을 진실한 대화가 오고 간 뒤, 교회는 새 건물이 들어설 때, 첫 교회 건물을 지었던 돌덩이들의 일부와 종을 보존해 교회 앞 마당에 100 주년 기념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100 주년 기념탑은 제 고향 교회 앞마당에 아직도 우뚝 서 있습니다. 한 현상에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조화롭게 다른 반응으로 하나로 엮어낸 예입니다.

혹시 대화가 신세대를, 혹은 구세대를 비방하는 것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암송구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2)

자녀와의 나눔

“너는 아빠, 엄마가 언제 제일 답답하게 보이니?”

2 월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에스라 10:1-5,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울 사람”

찬송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375 장, 나는 갈길 모르니 (통, 421)

221 장, 주 믿는 형제들 (통, 525)

여는 질문

당신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멘토가 없다면,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어주세요)

본문 이해

에스라는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되었던 유다를 친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유다가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나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번엔 제사장과 관리들이 앞장 서서 이 일을 꾸몄습니다. 배신감, 좌절, 절망: 이런 것 따위들에 짓눌려 에스라는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에스라에게 스가냐가 찾아와줍니다. 찾아와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전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직 정결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스가냐는 죄 지은 사람들을 향해선 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선, 에스라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일어납니다. 일어나 다시 그가 부름 받은 일을 완수해 나갑니다.

말씀 속으로

- 1) 9:3-15 를 읽고 성전 앞에 엎드려진 에스라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해봅시다.
(자신이 읽은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훈련입니다. 슬픔, 배신, 좌절 등등...)
- 2) 10:1-5 에 나온 스가냐의 말 중에 어떤 한마디가 에스라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옵니까?

삶 속으로

- 1) 스가냐처럼 당신이 쓰러졌을 때, 당신에게 찾아와 힘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힘을 불어넣어준 사람들의 기억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도자는 자신에게 누가 힘이 되었는지, 이야기 하나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말이 힘이 되었는지 나누세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힘들었던 이야기에 집중하게 하지 마시고, 계속 어떻게 다시 힘을 얻었는지에 집중하도록 하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힘들었던 시절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힘이 되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하지 마세요. 힘이 되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말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그 고마운 사람에게 땡큐 카드를 보내는 활동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땡큐 카드를 준비하시구요. 아예 우표까지 붙여서 지금 당장 쓰게 하세요)

- 2) 지금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공동체에 에스라처럼 쓰러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그 이름을 나누고 힘을 내어 기도하도록 하세요.

암송구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자녀와의 나눔

넌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왜 그 아이가 좋으니? 너도 그 아이에게 좋은 친구니?

2 월 셋째주 소그룹 모임

느헤미야 5:1-13,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

찬송가

459 장, 누가 주를 따라 (통, 514)

448 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

586 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통, 521)

여는 질문

당신은 빛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본문 이해 (2 월 15 일 언덕의 소리 내용)

밖으로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 공작에 맞서던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선 뜻하지 않은 내부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유다 사람 중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에게 돈과 양식을 꾸어준 뒤,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이자가 너무 높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밭과 포도원과 저당으로 잡았고, 그도 모자라면, 채무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그나마 가진 재산과 자녀까지 잃어버린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 느헤미야에게 탄원을 넣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갈등의 중심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 물린 높은 이자가 있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 땅에 돌아와 모두 형편이 어려운 이 때,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과 양식을 꾸어주어 그들의 피를 빨아 먹은 것입니다.

성경은 높은 이자를 매기는 고리대금업에 대해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안식년과 희년을 정해놓아 빚을 탕감하고, 빛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놓아주어 가난한 사람들이 영원히 빛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주님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융자 받는 일, Financing 은 미국 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경제활동 중 하나 입니다. 차 페이먼트 payment 를 위해, 집 모기지 mortgage 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 학비를 위해 우리는 융자를 받습니다. 고상한 말로 해서 융자이지, 융자는 곧 빚입니다. 사실, 적절한 이자의 빚은 건강한 재정을 설계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사회가 빚을 끌어다 쓸 수 밖에 사람들에게 적절한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컨데, 경제 능력이 없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가 8%가 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높은이자율의 학자금 대출이 젊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지 오래입니다. 또한, 생활비가 부족해 크레딧 카드 credit card 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14%에서 20%가 넘는 이자율을 붙여 때론, 원금보다도 많은 이자를 내게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물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크레딧 카드를 남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크레딧 카드를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본이 만들어내는 재화가 노동이 만들어 내는 재화보다 더 많아질 때, 어쩌면 우리는 성경이 그토록 막고자 했던 영원한 빛의 노예가 되는 일을 순순히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2 절과 13 절엔 느헤미야의 설교를 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의 빛을 탐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2018 년 느헤미야가 미국에 다시 찾아와 같은 설교를 한다면 오늘을 사는 채권자들은 그 시절 유다 사람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빛을 탐감해주고, 빛으로 인해 저당 잡힌 포도원을 돌려주려 할까요?

말씀 속으로

1) 1:1-5 를 다시 읽고 돈을 빌어 쓴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집어봅시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유민이 종, 혹은 노예가 되는 경우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전쟁에서 진 경우, 그리도 다른 경우가 빌린 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도 높은 이자를 물리는 고리대금업이 존재했고, 그 결과, 자녀들을 종을 빼앗기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1:6-11 을 읽고 느헤미야가 채권자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집어봅시다.

3) 성경은 과연 돈을 빌어주고, 이자를 받는 일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다음 성경 구절들을 찾으면서 알아봅시다.

- 레위기 25:37
- 누가복음 6:35
- 누가복음 19:23
- 마가복음 11:15-17

사실 성경은 고리대금을 하는 것이 전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는 것을 굳이 나쁜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높은 이자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빛의 굴레로 떨어지는 것을 옳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 장 15 절에 나오는 장면도 마찬가지로인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쓰이는 돈으로 환전하는 것을 두고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터무니 없이 높은 환율을 적용해 성전에 헌금하러 온 사람들을 책복하는 우리들에 대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삶 속으로

- 1) 빛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빛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입니까? 왜 성경은 빛 얻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까? (잠언 22:7)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빛이 합당한 이유에서 가지게 된 것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빛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빛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보니 정작 필요한 일이 아닌 탐욕을 채우는 일에 빛을 끌어다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빛은 그 빛을 가진 사람을 종으로 부립니다. 그래서 빛을 얻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 2)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생활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는 매우 자주 돈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돈벌이와 씬씀이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헌금 하는 일, 구제하는 일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활동에 속합니다. 속도원들이 함께 좋은 그리스도인 경제 지침서인 김영봉 목사께서 쓰신 "바늘 귀를 통과한 부자"를 읽어보아도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21)

자녀와 나눔

넌 뭐가 제일 갖고 싶어? 그걸 가지면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언제까지 행복할까?
(꼭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거들떠 보지도 않는 장난감 하나를 가져다 놓을까요?)

2 월 넷째주 소그룹 모임

에스더 3:1-6, 인사

찬송가:

212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통, 347)

465 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424 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통, 216)

여는 질문

당신은 당신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본문 이해

하만과 모르드개 사이의 갈등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르드개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뜻 보기엔 인사를 하지 않은 모르드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 것 같지만,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잘못은 하만 쪽에 더 있습니다. 대궐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했습니다. 하만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받아도, 그 중 인사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만은 인사하지 않는 오직 한 사람, 모르드개는 물론, 그의 민족 모두를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 속으로

- 1)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보고 하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분노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 2) 모르드개는 왜 인사를 하지 안았을까요? 본문엔 특별한 설명이 없지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봅시다.

삶 속으로

- 1)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큰 싸움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벌인 큰 싸움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 2) 당신이 찾아가 인사해야 할 분인데, 오히려 당신에게 찾아와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암송구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갈라디아서 5:13)

자녀들과 나눔

오늘은 댁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